

家政學이 追求하는 家庭의 安寧과 福祉의 概念에 대한 研究
: 批判理論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Meaning of Well-being and
Welfare of Home as a Purpose of Home Economics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李榮世
교수 金良喜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 Ang University
Part Time Instructor : Lee Young Se
Prof. : Kim Yang 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비판이론에서 보는 현대사회와 가정 | 참고문헌 |
| III. 가정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논의 | |

〈Abstract〉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well-being and welfare of home has been analyzed and a new direction in which home economics should advance has been suggested. This study not only would help the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be properly understood and its disciplinary position take its own place, but also a conceptual analysis which might be uncommon in the studies of learned circles of Korean home economics would be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uniqueness of the discipline named by home economics.

Based on the critical theory of Haberma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well-being and welfare of home have been emphasized unfairly in the physical and technical aspects and such a partial pursuit of positivism and purposive rationality of scientific technology has resulted in the situation that home would be gradually encroached and controlled by the social system pursuing purposive rationality.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kind of problems, communicative rationality

that has emphasis on the process of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has been focused. The meaning of well-being and welfare of home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family life actions into technical action, practical action, and emancipatory a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have been examined and ideal directions of each element have been discussed.

I. 서론

가정학은 본질적으로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개인 및 가정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인류 전체의 복지 향상을 학문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Vincenti, 1981:16; 윤서석, 1981:101; 문수재·이기열, 1984:181; 문숙재, 1985:176; 유태명, 1992:47).

가정학은 인간과 가정이 존재함에 따라 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실제 행동을 취함으로써, 가정이 새롭고 개선된 조건으로 변화되고 더 나은 질적인 상태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둬으로써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한다(Brown and Paolucci, 1979:13-16; Brown, 1980: 56). 이 때문에 가정학은 학문의 성격상 혁신 분야(reformist field)로 분류된다(Vincenti 1981:36-40).

그러나 현재의 가정학은 가족과 가정생활의 당면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한다는 본래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과 가정생활의 문제를 다루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로 자처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학문적 정체감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가정학은 현재 혼돈과 위기의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Thorne, 1979:127-134; Vincenti, 1984:14; 松島千代野, 1995: 5; 김재은, 1984:191-192; 이기열, 1987:156; 유태명, 1992: 43-44).

흔히 가정학은 의, 식, 주, 육아 등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익히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고 가정학자들은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 인식되고 있다(Brown,

1986:42).

가정학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현상은 각급 학교의 家庭 관련 教科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家庭의 기능을 이해하고 家庭의 중요성을 다루는 과목은 「바른생활」, 「도덕」, 「사회」 과목들이다. 家政科 관련과목으로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수하는 「실과」 과목은 교육과정의 중심이 '실생활에 유용한 기본적, 기초적 일감을 정선하여 다루고 만듦으로써 勞作의 체험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나 사회와의 상호관련적인 내용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교육부, 1994b: 195-236). 이는 가정학자들이 家政科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부터 발달 단계를 고려해 정선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노력이 미흡하였던 결과로 볼 수 있다(이기훈, 1989:256-257).

많은 대학에서 가정대학의 학과 구성이 타당성이 무시된 채 세분화되거나 또는 통폐합되고, 그 명칭이 家政과는 전혀 무관한 학과명으로 바뀌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가정학의 취약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문수재·이기열, 1984: 192-193). 가정학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세분화되고 분열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궁극적 목적인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증진과 복지 사회 구현'을 추구한다는 일관된 방향성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이기훈, 1989 :257).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문적 성격에 관련된 개념의 본질적 의미를 명확한 이해나 합의 과정이 없이 학자마다 辭典의 의미로 단순히 해석하고,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불명확성이나 오류가 발생하고 학문의 정체감이 약화되며, 자신감

과 신념이 없이 방향 감각을 잃고 결국 학문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연구로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김항아, 1994:10-16).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련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가정학의 목적 개념인 '가정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개념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가정학에서 최종 목적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가정생활의 향상',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 '가정의 행복 증진', '가족과 인류의 복지' 등의 용어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그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시키기 위한 논증과 정당화를 위해 哲學的 思考가 반드시 필요하다(Moore, 1982:20-22). 哲學的 思考라 함은 개념에 대한 기존의 권위를 배제하고 자기 반성 및 비판을 포함하며 논리적 타당성과 개방된 토론, 자유로운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여 그 개념에 대한 일종의 '內的 構造變化'를 시도하는 것이다(김태오, 1991:66). 가정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개념 분석도 가정학의 前提와 假定 그리고 실천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당하며 그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이나 신념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가를 일관적으로 논증하는 철학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Brown과 Paolucci도 가정학에 관련된 개념 분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훈련되고 조절되어야 하며 의미의 분석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79:2).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와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가정의 안녕과 복지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사회의 비판적·철학적 이론과 연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정학의 대상인 인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의 根底에는 반드시 당시의 인식 사조를 주도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사상적·철학적 배경이 있다. 현대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와 원인의 根底에는 바로 현대사회의 특성 즉, '現代性'의 개념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 現代性은 비판사회 철학자들의 집중적

으로 논구하는 주제이다(윤평중, 1990:11).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 철학자들이 주도하는 비판이론에서는 현대성의 실체를 20세기에 만연했던 객관성과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는 실증주의와 과학기술주의의 목적 합리성의 만연,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문화적 황폐화 등의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모든 학문과 인간 및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정과 가정학의 학문적 현실도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회적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가정과 가정학의 문제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상태인가를 규명하는 데는 현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시각에 비추어 보아 비판이론은 이러한 분석틀을 타당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의, 식, 주 중심으로 분류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가정생활의 행동의 근본이 되는 관심과 이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기훈, 1989:257). Habermas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행동은 인간의 근본적인 세가지 관심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세가지 관심이란 기술적 관심, 실천적 관심, 해방적 관심으로서 인간과 사회생활의 바탕이 되어 왔고 인류 역사의 진보를 주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그 바탕이 되는 인간의 세가지 관심과 행동요소에 따라 기술적 행동요소, 실천적 행동요소, 해방적 행동요소로 분류하여 현재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2. 가정학은 현대사회의 철학적 사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여 왔나?
3. 현대의 가정생활에서 가정의 안녕과 복지는 어떤 상황이며 가정학은 어떤 상태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II. 비판이론에서 본 현대사회와 가정

비판이론은 산업 혁명 이후 형성되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절정을 이루었던 실증주의를 맹신하고 그 지식을 인간생활에 무조건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병폐와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식의 특성, 이성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비판·분석하는 이론이다(윤평중, 1990:13). 비판이론은 현대사회의 현실 문제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인간 회복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판이론은 개인과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는 편견과 왜곡을 밝히면서 그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Gibson, 1986:15; 조혜정, 1988:32-33).

비판이론이 본격적으로 家族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은 개인과 사회와의 연결체이며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사회가 개인을 무시하고 소외시킬 때 가정은 그러한 억압적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따라서 가족과 가정생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이론의 사회철학적 분석들이 유용하며 이를 통하여 현대의 가정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유태명, 1992:49; 서정희외, 1993:153-155).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家庭의 문제와 가정학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관련지어, 여러 가지 명제중에서 필요한 몇가지 만을 선택하여 비판이론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비판이론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밝히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생존에 관한 문제나 인간에게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이론은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모든 학문에서 자연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자연과학적 연구의 기본 假定은 인간과 사회의 행동

을 구성하는 의미의 맥락을 무시하고, 사실은 가치와 무관하며 중립적·객관적 언어로 기술·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론은 '어떤 사실은 이미 중립적,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개념을 거부하고 人間事의 모든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간의 견지에서 결정·해석되며 따라서 인간의 방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정학은 전통적으로 자연과학적인 학문의 성격과 연구방법을 취하여 왔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인 인간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의미 맥락을 무시하면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였던 것은 가정학의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 부적절하거나 왜곡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비판이론에서는 기술과학이 주장하는 합리성 즉 '목적 합리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중심개념을 비판하고 도전한다. 비판이론가들은 목적 합리성을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지배적인 특성으로 보고 그것이 초래한 기형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적 합리성은 목적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수단에 몰두하며 방법 및 능력성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목적 합리성은 '그것은 무엇인가?'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빠져들게 된다. 가정학은 본질적으로 목적 합리성을 추구해 온 학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가?'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질문이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지 않았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 계량할 것인가?'나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셋째로, 비판이론은 집단과 개인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요인들이 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압하는 세력을 파악하고 진정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게 하여, 더 나아가서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볼 수 있다(Gibson, 1986:20-21). 이러한 점에서 비판이론은 가정학의 독자성과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어떤 행동이나 입장

을 취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가정학을 연구하는 학자, 학생들에게도 학문적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몇가지 비판이론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이론가로서 Jürgen Habermas가 있다. Habermas의 지식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현상인 사회전반과 인간생활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다(유태명, 1992:49-50). 그는 개인과 집단들에게 현대 사회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효과적인 발언권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실증주의와 과학 기술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학기술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목적 합리적 행동의 의미 및 그 결과가 야기한 현실을 분석한다. 동시에 Habermas는 개인과 사회집단이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Habermas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개인·가정의 모습과 가정학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실증주의의 객관성·가치 중립성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가들은 Popper를 비롯한 신실증주의자들과 전개된 일련의 논쟁을 통하여 실증주의의 속성인 가치 중립성과 객관성을 부정하는 논쟁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비판이론은 실증주의의 비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논쟁 과정에서 비판이론은 더욱 정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윤평중, 1990:47). 본 절에서는 실증주의가 물질과학적 본질 규명과 현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판이론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가정학에서 주로 사용하여 왔던 실증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반성해 보고자 한다

실증주의는 폰트에 의해서 발전된 견해이다. 그는 세계 역사가 진화론적인 법칙에 의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폰트에 의하면 진화의 과정은 1300년 이전까지의 신학적 단계(theological stage)와 1800년까

지의 형이상학적 단계(metaphysical stage)를 거쳐 1800년대 이후에는 마지막 실증적 단계(positive stage)에 이르게 된다. 실증적 단계에서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는데 인간들은 더 이상 神 또는 자연과 같은 궁극적 원인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사회적·물리적 세계를 관찰하여 자신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 낸다. 폰트는 집단, 사회, 개인, 정신까지도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의 두 단계는 지적·사회적 무질서의 시기였지만 실증주의가 완전히 지배권을 획득하면 사회적 격변들이 멈추고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고 하였다(Ritzer, 1987:33-34).

이러한 실증주의적 세계관은 자연과학에 도입되어 20세기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도입되었다. 그 결과 모든 지식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 지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모든 연구 영역에 과학적 방법만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주의는 지식의 토론에서 인간의 주관적 가치나 규범을 배제시키고 학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수단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목적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Habermas는 실증주의를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해온 과학적 탐구에 깔려 있는 철학적 기초로 파악하고, 실증주의가 인간의 의식을 분열시키고 인간을 소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는 모든 지식은 언제나 인간의 근본적인 관심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믿는데, 그 중에서 실증주의적 지식은 인간의 관심 중에서도 기술적 관심사 즉, 예언과 통제를 향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실증주의는 모든 사회적 세계 전체를 기술적 관심을 통한 예언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연 과정 또는 물체로서 파악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Habermas는 과학적 실증주의가 스스로의 출발점인 과학적 인식을 구성하는 이른바 기술적 관심을 망신하고 실천적 관심이나 해방적 관심이 갖는 자기 반성에 소홀하고 심지어 자기 반성 자체를 부인하려는 독단주의적 태도가 있다고 주장한다(Gib-

son, 1986:58). 인간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과학의 일반법칙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취향을 지니며, 기존체제에 대한 창조적인 도전을 불가능하게 한다.

가정학의 대상인 인간과 가족, 그리고 가정생활은 늘 인간의 가치와 주관적인 의미, 규범이 논의되어야 하는 場이며 가족 상호간에 비판과 자기 반성을 통한 합리적 행동을 선택해 가야 하는 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가정생활을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객관적·가치 중립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연구한다면 가족내의 상호작용과 그 주관적 의미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행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인간과 가정에 대해 과학적 지식만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왜곡되어 있는 사회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과학 기술주의의 목적 합리성

20세기 이후 실증주의의 득세에 따라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만연되었고 과학 기술은 눈부신 산업 발전과 엄청난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과학'은 자연과 물질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측정하고 지배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을 근대에 들어와 시작된 경험과학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개념의 원래의 의미는 이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추론된 지식'이라는 뜻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논리학, 수학, 윤리학 등이 과학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과학의 의미는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어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과학은 바로 경험과학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어 버렸고 합리성을 명분으로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깊이 침투하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만연되었다(Brown, 1986:41). Habermas는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주장

하면서 목적 합리성의 비중이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합리성'은 Weber에 의하여 깊이 論究된 개념이다. 그는 합리성을 '자신의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의식적으로 숙고하여 행동하는 지성적 경향'으로서,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묵인하는 것'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사려 깊게 정세에 대응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Brubaker, 1985:46; 이종수, 1981:297-301). 심사숙고하여 계획되고 수행된다는 의미로서의 합리적 행동의 유형을 Habermas는 가치 합리적 행동과 목적 합리적 행동으로 분류하면서 이 둘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과도하게 만연된 목적 합리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목적 합리적 행동은 수단과 목적의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추리하여 취하는 행동이다. 반면에 가치 합리적 행동이란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의식적 신념을 전제로, 행동하고 담화하는 주체들이 자기 중심적 계산이 아닌 상호간의 이해도달을 위하여 자유롭게 평등하게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행동'이다.

사실 목적 합리성은 그 자체로는 자연의 통제와 풍요를 가져온 과학 기술주의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자유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해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 일정 수준의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좋은 삶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주의가 추구하는 목적 합리성의 개념은 여전히 그 자체가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산력의 향상이나 물질적 풍요와 같이 목적 합리성은 '좋은 삶' 또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 '인간의 행복'이라는 의도에 이바지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다양하며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변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적 합리성이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합리성의 逆說'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Habermas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적 합리성이 만연되고 기술관료적 지배가 확대되는 가운데 규범적 가치 합리적 영역인 생활 세계가 목적 합리적 행동체계에 암암리에 침식되어 가는 경향을 주목하고

있다(문현병, 1993:242-272).

목적 합리성이 과도하게 추구된 결과 인간의 생활이 질식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목적 합리성은 가정에도 침투하여 가족원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적인 영역에서도 주관적 의미나 가치를 교환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에 상호이해를 통한 진정한 인격의 교류가 없이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상호간에 진정하게 합의된 목표가 아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결국 과학 기술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구된 목적 합리성이 만들어 낸 역설로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적 위기로 간주되고 있다.

Habermas는 진보된 사회란 과학 기술적 우수성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목적 합리적인 사회체계를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이 體顯되는 수준이 밑받침될 때 우월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윤평중, 1990:126). 그러므로 목적 합리성은 가치 합리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가치합리성은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규범적 생활 세계에서 확보되는 합리성,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나타난다.

3.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인간의 소외

실증주의와 과학 기술주의가 표방하는 목적 합리성이 현대사회를 지배함으로써 현대의 인간과 가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보는 시야가 왜곡되고, 가족구성원 사이의 규범, 가치, 의미, 믿음 등을 공유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무미건조하고 기술적인 삶을 살아 가게 되었다. 레저, 가정생활, 성생활 등이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가정은 물질적 소비와 관련된 목적 합리적인 가정 관리의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매일의 인간생활은 기계적이고 사무적이며 물질적인 양상을 띠었고 자신과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가정 내의 이러한 소외 현상의 배후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Habermas는 ‘생활세계’와 ‘사회체계’라는 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Habermas는 생활세계를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개인 각자의 배후에 놓여 있으면서 이해의 과정을 지지해 주는 언어의 맥락’으로 정의한다. 언어 맥락이란 의사소통자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이해의 과정을 돕는 것으로서, 생활세계는 바로 이 언어 맥락 즉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에서 조망되고 있는 개념이다(Roderick, 1992:150). 생활세계는 인간이 이루어 가는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믿음과 가치를 나누며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합의를 이루어 진보해 가는 데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現象의 개념이다.

생활세계의 개념과 대비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체계’는 경제나 국가와 같은 상위체계로 구성된다. 생활세계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해 합리적으로 재생산되는 데 비해, 사회체계는 목적 합리적 행위에 의해 재생산된다. 목적 합리적 행동의 방식이 전형적으로 관철되는 분야는 과학 기술이나 경제와 같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현대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매체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 체계이며 지속적인 분화과정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형식적으로 합리화된 국가 행정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들은 서로 보완적 환경을 형성하며 또 각기 자체를 매개로 하여 환경과 상호 교환과정을 한다.

Habermas는 생활세계와 사회체계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한다. 생활세계는 경제와 국가 조직이라는 사회체계에 의존하고, 반면 사회체계는 사회화된 개인의 재생산과 일관된 문화전통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 생활세계에 의존한다. 동시에 그들은 사회발전 과정에서도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Roderick, 1992:162). 사회 발전은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과 사회체계의 분화에 의해 일어나는데 복잡하게 분화하는 사회체계가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자극하고, 새로운 생활세계는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생활세계와 사회체계가 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생활세계와 사회체제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불균형 혹은 병리라고 볼 수 있는 장애가 발생한다. 근대화의 逆說과도 같은 이러한 장애를 Habermas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칭한다(Roderick, 1992:162; 윤평중, 1990:41). 초기 비판이론에서는 이 개념을 '物神主義'나 '物象化'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Habermas는 이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Roderick, 1992:164). Habermas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갈등을 더 이상 단순한 물질적 재화의 분배 문제로 보지 않고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학 기술주의와 그에 기반한 사회체제가 생활세계를 잠식하여 가는 데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식민화(colo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란 사회체제가 비대해지면서 생활세계의 상징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억압하고 대중을 탈정치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는 계급 갈등이 순화되고 정치 영역은 안정되나 이러한 순화나 안정의 댓가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은 국가 심복의 위치로 변하며, 활동적 생산자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된다.

한국 사회 역시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적 관리국가라는 사회체제이다. 권력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 기술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의 합리성은 여타 가치영역보다 훨씬 큰 주도권을 갖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가나 경제체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어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기술의 무한 경쟁 시대', '세계화의 추구' 등의 구호가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우리의 역할 및 목표를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Habermas는 생활세계내의 의사소통적 구조가 위협에 처할 때 그 사회는 위협 수위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적 생활세계가 기능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합리적 행위에 잠식당할 때 심각한 위기와 장애가 생기게 된다. 현대사회를 왜곡시키는 여러 위기 중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야기되는 의미 상실, 아노

미, 인성 혼란, 인간의 소외 현상이다.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결과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소외되고 결국 정체감의 상실, 비인간화,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Roderick, 1986:165).

현대 사회의 많은 가족은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매몰되어 물질주의적 가치기준과 상업 광고에 휘둘리면서 자아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자율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가족내의 왜곡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부부간·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를 대상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가족원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청소년 비행의 최근 경향을 보면 주요 원인이 가정의 물질적 빈곤보다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의 연장이나 확대가 없고, 따분한 가족생활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규범이 없는 가족과 사회는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적인 正體感의 형성을 방해하여 정신적인 무관심과 소외를 야기시키며 가족생활의 질, 더 확대해서는 사회 그 자체의 질에 손상을 주고 있다.

4. 의사소통적 합리성

목적합리성을 신봉하고 추구하였던 과학 기술주의가 가정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화의 역설로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적 준거들이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

Habermas는 의사소통적 행동을 '관련 당사자들의 행동이 성공을 향한 자기중심적인 계산이 아닌 이해지향적 행동을 통해서 조정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의사소통적 행동에서 달성하려는 합리성이 목적합리성과 다른 점은 행동하고 담화하는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중시된다는 점이다.(김태오, 1992:14). 목적합리적 행동은 목적 자체의 규범적 타당성이 보류되어 실제로 참되고

선한 생활을 지향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가정의 안녕과 복지가 지향하는 훌륭하고 참된 삶(good and true life)을 향한 생활 규범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목적 합리성이 서로 정반대되고 상호 배척적인 개념은 아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현대성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상호 보완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목적 합리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던 현대성의 위기는 생활세계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해 주는 합리성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제자리로 복원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윤평중, 1990: 14).

현대사회의 가정 생활에서는 실천적 규범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 합리적 행동보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본래적 의미에 적합하다. 일상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족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갈등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이런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 때 단순한 권위나 전통, 힘 등에 의존하여 가족간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호간의 자유로운 비판과 논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유롭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논의와 토의를 실행할 때는 정당한 논거나 이유 제시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의사소통 행위가 합리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다. Habermas는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s)이라는 개념으로써 이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Habermas, 1979:100-111; Roderick, 1985:140-143; Held, 1980:378-391; 윤평중, 1990: 113-117; 김태오, 1992:18; 홍윤기, 이정원, 1982: 378-381). 타당성 주장에는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포함된다.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 진리성(truth), 정당성(rightness), 진솔성(truthfulness)이다. 이해가능성이란 의사소통적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기하는 타당성이다. 진리성은 말하는 내용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참인가에 대

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때 제기하는 타당성이다. 정당성은 의사소통 공동체의 맥락에서 어떤 행동과 언명이 규범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상호 검토할 때 요구되는 타당성이다. 진솔성은 대화자의 발언이 진지하지 못할 때 그의 성실성을 문제로 삼는 타당성 주장이다. Habermas는 우리의 행동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상과 같은 타당성 주장의 기초적 합의에 기반해 있으며, 이런 주장들에 관한 자유로운 상호 검증이 가능할 때라야만 비로소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생활의 실천에서 의사소통적 논의의 전개는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전제로 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추구될 수 있다. Habermas는 이러한 조건을 '이상적 담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적 담화 상황이란 상호 주관적 또는 보편적으로 조리있는 논증을 위하여 진리와 규범을 협동적으로 탐색하는 힘 다시 말해서 '더 나은 논증의 힘'을 제외한 그 어떤 동기도 배제하려는 반사실적인 의사소통의 조건이다. 이는 의사소통이 지속적인 외적 긴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내의 구조에서 생기는 강제성을 통해서도 장애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서 담론의 결과가 보다 나은 논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황을 가르킨다(윤평중, 1990:115).

그러므로 이상적 담화상황은 합리적 논의의 조건이다.(Habermas, 1984:144). 그러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의 반사실적인 가정이다. 왜냐하면 진리와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외의 어떠한 동기도 수용하지 않고, 보다 나은 논증력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상적 담화상황은 여러 관점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된다(윤평중, 1990:188).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내외적인 제약이 전혀 없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그의 이상주의가 비현실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토의를 무제한 허용되는 사회가 아니며 그럴 수 있는 토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Roderick, 1992:112-113).

그러나 위의 논의를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논의나 토론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불가피한 상호적인 전제가 되어야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논리 즉 이상적 담화상황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비판할 수 있는 척도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상적인 담화상황은 '이상적 삶의 형식적 조건'(Gibson, 1989:62)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Habermas는 이상적 담화상황을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당연히 기대해야 하고 또 기대된 정도만큼 합리적 합의 달성에 효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김태오, 1992:24).

Ⅲ. 가정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논의

가정의 안녕과 복지는 정태적 개념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하여 가정내에서 이루어 가는 동태적 과정의 개념이다. 가족원은 그들의 안녕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思考하며 행동하며 그 결과로서 가정의 안녕과 복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행위자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와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정학에서 가정생활의 영역을 구분할 때는 항상 의, 식, 주, 육아 등의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영역들은 인간의 일차적인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분류 방법은 가족원의 행동과 관심이나 의도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보다는 가정생활에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제공하는 思考, 즉 관심과 의도, 동기를 이해하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정 내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Habermas는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도와 동기를 지식에 대한 인간의 근본 욕구와 관심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Habermas에 따르면 인간은 지식을 계발하고자 하는 세가지의 근본 욕구 및 관심이 있다. 이 세가지 체계가 가정학에서 다루는 가정생활의 행동을 구분하는 데도 유용하다. 인간의 행동 역시 관심에 의해 이끌어지기 때문이다. 가족의 행동은 어떠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는가에 따라 기술적 행동, 실천적 행동, 해방적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가지 행동 요소가 합쳐져 가정 생활의 행동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요소들이 바람직한 제 모습을 찾아갈 때 가정의 안녕과 복지가 충족될 수 있다. 가정생활의 행동영역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합리적인 모습을 찾아가려면 이 세가지의 요소들이 어떤 이상을 지향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기술적 행동 요소

가정생활에서 기술적 행동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 식, 주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연 또는 무생물을 통제하는 일 또는 작업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주로 물질적인 관리와 가사노동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 중에는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적정 개념이 추구되는 경제적 요소와 여러가지 물질적 요소를 도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는 기술적 행동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가정의 기술적 행동은 현대사회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무한히 증대되고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술적 행동은 가족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공예품 제작이나, 美的인 가치를 갖는 예술품을 창조하기도 하고 한 사회의 문화가 되기도 한다. Habermas도 기술 그 자체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자연 통제의 결과로 풍요를 가져온 과학 기술에 의한 합리화는 인간의 자유실현의 기회를 증대하고 사회의 해방을 실현하는 필요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적 행동은 가족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

는 데 쓰여지기도 한다. 다른 가족원을 대상으로 목적 합리적인 행동의 원리를 사용하여 어떤 변인을 자극함으로써 어떤 태도, 행위가 생기게 하는 조작적 행위들이다. Brown은 이렇게 쓰여지는 기술적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단정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행동은 아동, 배우자, 부모 등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 즉,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만을 위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을 독단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원리는 사회과학적 원인-행동원리이다. 가족은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데도 목적 합리적 행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Brown, 1980:63)

현대사회의 가정생활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고 효율적인 가사기구들이 많이 갖추어졌으며 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공급받는 등 기술적 행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작, 통제 등을 위주로 하는 기술적 행동이 모든 영역에서 제한없이 적용됨으로써 개인의 소외와 고립감, 인간생활의 황폐화, 폐쇄적인 가정문제, 가족문제의 심각함 등을 유발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가족 생활의 파분함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 생활의 질은 서로 간에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Pope, 1971 Brown, 1986:45 재인용). 1960년대의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하기를 이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경쟁을 격렬히 벌이고 있으며 부모로서 표방하는 가치와 그들이 실제 아무 생각없이 살고 있는 것 사이에서 모순과 위선이 내재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로부터 낙오되었다고 하였다(Keniston, 1965, Brown, 1986:45 재인용).

과학 기술의 추구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지구가 생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술에 의해 소외된 인간이 자연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환경을 파괴하여 가고 있다. 기술적 합리성은 도리어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며 생존의 위협을 가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Spengier는 기술적 행동의 본래적인 의미 중에서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간과해 온 부분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삶의 전략으로서의 기술’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기술이란 원래 태고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하등의 특수한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란 사람에게 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동물에 있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공간 이동성, 자기 이외의 모든 自然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자유나 독립성, 그리고 동시에 자연을 향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생존에 어떤 종류의 의미나 내용 또는 우월성을 내세워야 하는 필연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Spengier, 1931, 김용준, 1992:19-20 재인용).” Spengier는 기술을 도구로만 이해해서는 안되고 생명 활동과 같은 의미에서의 투쟁 방식의 내적인 형식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현재의 삶의 양식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삶을 통찰하는 그야말로 인간이 영위해야 할 바람직한 삶에 대한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의 작업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근대 기술을 세가지 의미로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소위 산업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기능, 시스템 그리고 생산 과정을 의미하며 두번째는 현대성과 연결되는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이며 실리주의적인, 이른바 인간 중심적인 세속적 세계관을 말하고 세번째는 산업 생산 과정과 근대적 세계관을 낳게 한 사물을 이해하는 현대적 양식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이 세가지 중에서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 근대 기술의 특징이라고 한다(김용준, 1992: 47-48).

Spengier와 하이데거가 의미하는 기술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원료로서의 사물을 다듬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추어 내는 정신적 차원까지 포함되어야 완전히 해명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어의 *techne*가 의미하는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신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예술의 본질(the essence of art)’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술 문명 사회에서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기술(Schumacher, 1974: 146-159)’ 이

될 때 자연과 인간의 착취 개념이 아닌 기술의 인간화가 추진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과의 협동적이고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는 생태 윤리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다는 의미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적 합리성이 이데올로기화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파괴와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제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요소에서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기술적 요소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기술적 요소의 실천성과 관련된 차원이다. 다음에서 논의될 실천적 요소가 균형적으로 우리 가정에 존재할 때 인간 의식의 소외, 단절 등이 극복될 수 있고 자연 세계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안녕과 복지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적 행동 요소

가정생활에 나타나는 실천적 행동 요소의 본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는 가정학의 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실천'의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능력과 기능을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과 기능이 완전히 획득된 결과를 지칭하기도 한다. 가정학에서 다루는 실천의 개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경미는 실천의 의미에 대한 가정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다섯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실천 개념에 행동지향성과 가치판단, 도덕적인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생활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실천의 의미를 실용화와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가치 판단을 다루는 입장이 있다. 셋째는 단순히 실천을 '기능과 기술을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하는 입장에서 학문적 이론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가

치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혼동되게 규정하는 입장이다. 네째는 위의 세가지 경우와는 달리 실용성과 가치판단의 개념을 규범성과 실천성으로 따로 구분지어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이다. 그 중 실천성을 기초과학의 원리를 받아들여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용화시키는 측면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을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개념화하는 경우와 실험 실습과 직결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김경미, 1993: 45-49). 이처럼 가정학자들은 실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학문적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불일치는 하나의 통일된 객관적 인식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천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praxis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삼는 윤리적 활동을 의미하였다. Aristoteles(B.C. 384-322)는 학문을 실천(praxis), 판조(theria), 기술(techne)을 각각의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praktike), 이론학(theretike), 제작학(peietike)으로 분류하였고(김태오, 1992: 62), praxis나 techne를 공동체적 생활의 유지를 위한 인식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실천학의 과제를 도덕적인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선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한 지식의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문수재·이기열, 1984:182). Aristoteles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천 상황의 특수성을 그 상황의 규범적 중요성에 비추어서 일관되게 행동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고전적 실천이 추구하는 인간형은 상황에 대한 신중한 사려성 즉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었다.

규범성을 중시하였던 고전적 실천관은 근대에 들어와 크게 변화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근대 사회 철학자들은 선한 생활, 모범적 생활을 도덕적 조건이 아닌, 생존이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기술적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다루면서 실천의 의미를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분리시켰다.

Habermas는 이러한 실천성의 역사와 규범성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실천과 근대 사회철학자들의 실천의 개념을 辨證法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스의 실천관이 규범성을 견지한 점은

정당하나 객관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과학성을 결여한 점과, 근대 사회철학의 실천관이 技術的 해석에 집착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즉 규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실천에 과학적 엄밀성과 규범적 방향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적 장치로서 '의사소통적 실천'의 논리를 제시한다(김태오, 1992:47). 그는 의사소통적 행동에서 규범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지닌 실천의 참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적 실천이 지니는 규범성을 보면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 행위에는 상호 이해 도달이라는 개념이 내재해 있고 이러한 이해도달을 지향하는 사회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가 함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 여기서 거론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게 되는 언어와 삶의 실천적 연관은 규범적인 타당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인간 행동에는 규범적 타당성 문제가 소홀하게 되기 쉽지만, 대화 주체들이 자유롭게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규범적 타당성과 진리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 Habermas는 규범적 실천의 문제는 오직 의사소통적 행동의 원리에서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Held, 1980: 384).

가정학도 윤리학, 정치학 등과 함께 실천학의 학문체계에서 유래된 학문으로서 가족을 선한 생활을 추구하는 목적 지향체로 파악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덕성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가정학 역시 규범과 윤리, 가치를 다루는 실천적 요소를 비인적 요소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간주하고 물질을 생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실천의 개념에 따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직결되는 규범보다는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수단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가정에 대한 物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생활세계의 실천적 영역에는 규범성이 중요한 가치로 포함되지 않

면 안된다.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지향하는 실천적 행동 요소는 본질적으로 가족원간에 규범적 인간성의 지향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생활의 실천에 규범적 방향성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나 가정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판단을 위해 의사소통적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어떤 주제나 문제점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실천적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내 의사소통적 실천에 규범성이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가족원들이 기만적이거나 강제적이 아닌 이해에 도달하고 상호 합의하려는 의사소통적 실천의 구조는 규범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호 주관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의사소통적 실천이 바로 진정한 규범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가족원 간에, 다른 집단들과, 또는 우리와 다른 문화들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물론 좋은 삶을 추구하는 가족관계를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관성의 규범에 입각한 가정생활의 실천에서 가족공동체의 성원들은 상호 존중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정생활의 좋은 삶을 이루는 실천적 행동요소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3. 해방적 행동 요소

가정의 안녕과 복지를 이루는 실천적 행동요소가 진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의 상호 주관성이 확보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며, 가치, 신념, 이상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강제나 제한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완전한 자율성이 유지되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가족이란 현실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감금된' 또는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속에 처해 있다(MaCathy, 1984:86; Roderick,

1986:100).

Brown은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은 가족원간에 독단적 믿음과 억압 등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파괴되고 서로를 기만하고 통제하려는 도구적 합리성이 존재하고, 또 외부의 힘이 서로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를 원하는 가족의 의지를 방해하고 가족을 기만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때 가족원에게 필요한 행동이 바로 비판적 행동이며 궁극적으로는 해방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비판적 행동체제는 이미 19세기 말에 Hunt, Richards, Talbot 등에 의해서도 제안되었다(Brown and Paolucci, 1979:20). 그들은 가정은 가족 내의 강압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회적 힘에 의한 지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가족내의 이러한 행동 체제는 '인간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위하여 타인들과 협동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절해 나간다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정신과 의식,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Freud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왜곡된 의사소통을 극복하여 합리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진정한 발전 방향이라고 보았다. 그의 유명한 정신분석이론도 인간이 이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의 임상적 경험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은 바로 내면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 분석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이나 사회에서 문제로 나타나는 억압,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성의 내용은 Habermas가 말하는 세번째의 관심 즉 '해방적 관심에 의해 주도되는 인식'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 둘 모두 실체화된 권력과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을 달성하려는 관심과 전망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적 관심은 가정생활에서 해방적 행동요소로 연결된다. 해

방적 행동은 현재의 가정생활의 내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자기 반성의 실천적 잠재력을 통해 가정의 변화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해방적 행동이 충족되기 위한 가정내 조건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긴장이 없고 장애를 받지 않으며 가족원 상호간에 말과 행동이 정당한 논리나 이유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판적 행동이 가능하고 이것이 해방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할 때 기대되는 이러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타당성 주장과 이상적 담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거짓된 이데올로기, 독단, 교묘한 조작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사고, 충동성, 기만, 등이 등이 제거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지배적인 신념체계, 이데올로기, 규범, 가치 등 모든 것을 자유롭게 주체화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Yoo, 1991:25).

비판적 논의와 자기 반성의 특성을 지니는 해방적 관심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비판적 행동은 아이들의 자율적인 인성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부모는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들과 대화하면서 비판적 행동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인간을 대상화하거나 조종할 때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아동에게 노출되어 있는 어떤 선전이나 특정한 사회적 압력의 독단을 밝히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비판적 행동은 가족을 전통적인 이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늘 변하기 마련이다. Brown은 그 예를 가족 내에서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980:65). 먼저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념들을 드러내어 분류하고 그 결과로써 믿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가를 검토한다. 그 행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

리게 해서 자기의 기만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Brown은 또 가족내에서나 또는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행동의 모순이나 갈등에 직면하여, 힘이나 값싼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해방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한다(1980:66). 갈등적인 상황에서 비판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가족원에게 치료적인 자아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이것이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내에서 해방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이 그 구성원들을 위한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의 육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의 체계는 더 넓은 사회적인 결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Brown은 강조하고 있다(1980:6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목적 개념인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의미를 분석하여 가정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가정학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돕고 제 위치를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가정학계에서 부족되었던 개념 분석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가정학의 독자성을 정립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병폐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구하는 비판이론을 통하여 가정의 안녕과 복지가 실증주의, 과학 기술주의의 목적 합리성 등의 영향을 받아 물질적·기술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고 가정은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체계에 잠식당하고 통제당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해 인간의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시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 사고와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기준으로 기술적 행동 요소, 실천적 행동 요소, 해방적 행동 요소로 분류하여

각 행동 요소들이 지향해야 할 조건들을 논의하였다.

가정의 안녕과 복지에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가정학의 실천 과제는 예전의 실천학문으로서의 고전적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Schweitzer에 의하면 현대 서구 사회에서 발전시킨 가정학의 기초는 그리스 철학자 Aristoteles의 사상적 영향이 컸다고 한다. Aristoteles의 철학은 물질적인 것 또는 상업에서 재물을 쌓는 것보다 過慾을 삼가고 德을 향한 정신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생활 철학이며, 이것은 가정 내부와 가족간에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을 추구하는 가정학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1977:41-50).

가정학은 실천과학으로서 개인의 자주성 함양과 가족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학의 사명 지향적 성격이고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원간에, 학문적 공동체 상호간에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핵심적 개념이며 현대사회에 만연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1994 a),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I), (II).
- 2) 김용준(1992), 기술발달의 역사, 「과학기술혁명과 한국사회」, 고려대 평화연구소 편, 한길사, 20-53.
- 3) 김태오 (1992), J.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그 교육적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향아 (1994),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과 그 역사적, 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문수재, 이기열 (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81-198.
- 6) 문숙재 (1985), 복지사회에 기여하는 가정학, 「대한가정학회지」, 23-4, 176-181.
- 7) 문현병 (1993),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 동녘.
- 8) 서정희 외 공저 (1993), 「家政學 原論」, 하우.

- 9) 유태명 (1992), 가정과 교육방향의 재조명을 위한 가정학 철학 정립의 중대성, 「92년도 제 4차 학술대회 :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교육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43-59.
- 10) 윤평중 (1990), 「푸코와 Habermas을 넘어서」, 교보문고.
- 11) 이종수 편저 (1981), 「막스베버의 학문과 사상」, 한길사.
- 12) 이기열 (1987),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5-4, 155-160.
- 13) 이기훈 (1989),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55-258.
- 14) 조혜정 (1994), 「글 읽기와 삶 읽기」, 또하나의 문화.
- 15) 松島千代野 (1995), 家政學最大の 關心事, 「家庭科 教育」, 4月號.
- 16) Brown, M. M.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Washington D. 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17) Brown, M. M. (1986), Home Economics: A Practical or Technical Science? 「Vocational Home Economics Curriculum: State of Field」.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18) Brubaker, R. 나재민(역) (1985), 「합리성의 한계 - 막스 베버의 사회도덕관」, 법문사.
- 19) George Ritzer (1987), 「현대사회학이론」, 최재현 역, 형설출판사.
- 20) Habermas, J. (1971), 「Toward a Rational Society」, transed by J. J.Shapiro(London: Heineman): 장일조 옮김(1987),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종로서적.
- 21) Habermas, J. (1972),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ed by J. J.Shapiro(London: Heineman): 강영계 역 (1983), 인식과 관심, 고려원.
- 22) Habermas, J. (1973), 「Theory and Practices」, transed by J. Viertel(Boston: Beacon Press): 홍윤기, 이정원 역 (1986), 이론과 실천, 종로서적.
- 23) Habermas, J.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on of Society」,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진화, 심연수 옮김, 청하.
- 24) Held, D. (1980),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백승균 역 (1988), 비판이론서설, 계명대학교 출판부.
- 25) MaCathy, T. (1984), Critical Theory of Jurgen Haberma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26) Moore. T. W. (1982), 「Philosopy of education: an introduction」, 정영홍(역), 교육철학입문, 文音社.
- 27) Roderick. R. (1985), 「Habermas and Foundatons of Critical Theory」, 하버마스의 사회 사상, 김문조 역 (1992), 탐구당.
- 28) Gibson. R (1986), 「Critical Theory and Education」 비판이론서설, 이지현, 김희수 역, 성원사.
- 29) Schumacher, E. F. (1973), 「Small is Beautifull」, Harper & Row,Publishers, Inc.
- 30) Roderick. B. (1978), What is Home Economic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 79-84.
- 31) Thorne, E. (1979), The Two Faces of Home Economic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3, 127-134.
- 32) Yoo, T. M. S. (1991), The Need for Reconceptualization of a Core Curriculum in Undergrate Home Economics Education:Theoretical-Critical Examination of Major Historical Issues and Practical Concerns in the Fiel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3) Vincenti Virginia B. (1981),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